



일본 세이넨극단의 『총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의 주체적 해법찾기

박세연 /연극학

미우라 아야코 원작 『총구』가 2005
한일우정의 해' 기념 연극
으로 일본문화청의 지원을 받아 10월 13일
부터 11월 18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목포,
제주 등 14개 도시에서 공연되었다. 미우라
아야코는 한국에서는 『빙점』으로 잘 알려진
작가이다.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천 작가로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미우라 아
야코 전집』이 일본에서 출판되기도 전에 이
미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출판될 정도였다.
필자 역시 미우라 아야코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한명으로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숨결에 마음 한구석이 애련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와 함께 세이넨극
단(청년극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세이넨극단은 '아키다 우자쿠, 히지
카타 요시 기념' 극단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데, 쓰키지소극장의 창립멤버이기도 한 히
지카타 요시와 아키다 우자쿠는 프롤레타리
아 연극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연출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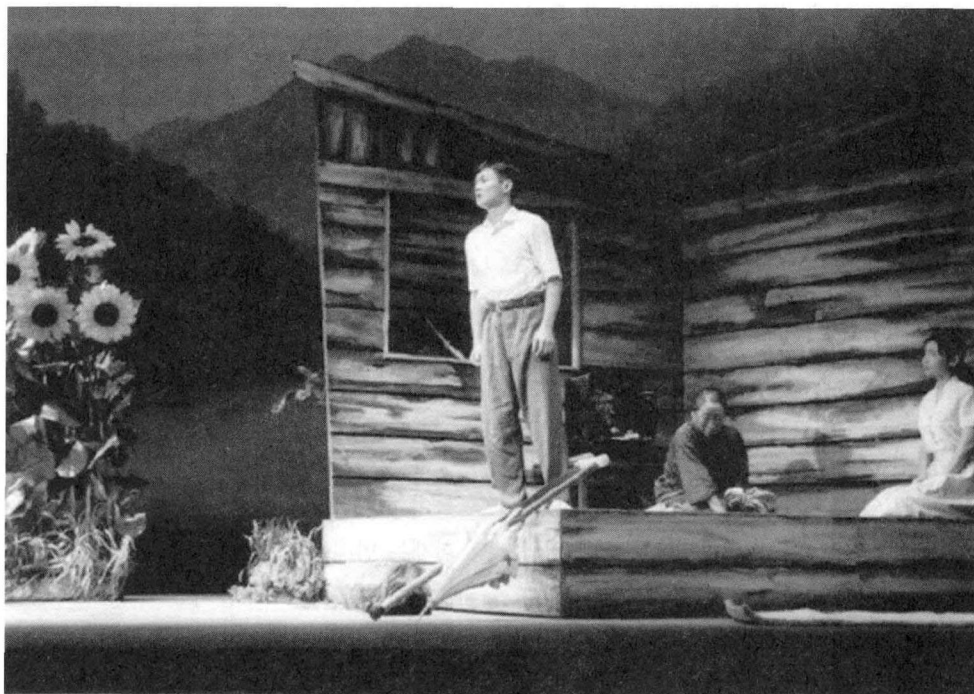
다. 그렇지만 한국 기준으로 우익, 좌익을
나누면 안 된다. 일본 우익은 군국주의자들
이기 때문에 좌익이라고 하면 오히려 중도
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장한 것이 '신극' 인데 가부키라
는 '구극'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낭만적인
전설, 설화보다는 이성적인 연극, 사회적인
연극을 주창하였다. 세이넨극단은 이들을
계승하는 신극극단을 만들고자 하였고, 특
히 연극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두며 이미
이전부터 종군위안부 문제나 재일 한국인 2
세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청소년 연
극에 큰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일본이 교육에서의 민주주의가 절실하
다는 시대상황 때문이다. 그런 세이넨극단
이기에 이번 작품 『총구』는 극단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작품의 배경은 1937년부터 1946년까지,
루거우차오사건(노구교사건)을 시작으로 2
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듬해까지 '기타모

리 류타'라는 한 청년교사의 삶을 따라가며 전개된다. 류타를 중심으로 하여 공간은 5개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공간은 갓 부임한 초등학교 교무실이다. 벽에는 일본 천황과 황후의 사진이 걸려 있고, '신주불멸', '충군애국' 등 전쟁을 고취시키려는 구호가 적힌 족자도 보인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한다. 전형적인 군국주의자인 사와모토 교장, 군국주의 교육에 반대하는 참교육 교사 기노시타, 중간에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젊은 교사 오키시마. 이런 초등학교에 류타가 부임해 온다. 류타는 유이치라는 학생을 만나는데 류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제자인 셈이다. 두 번째 공간은 류타의 집이다. 이곳에는 류타의 부모님과 누나인 미치요, 류타의 약혼녀 요시코, 형사인 스가이가 등장한다. 스가이 형사는 특고(특별고 등경찰 : 사상범을 단속하는 경찰)형사들과

는 달리 류타의 가족들과 오래전부터 함께 해 온 생활 속의 형사다. 그는 류타 가족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댈다. 즉 일본인 모두가 — 비록 형사라고 해도 — 군국주의자는 아님을 보여준다. 누나인 미치요는 한때 한국인 독립군 김준명을 사모했었다. 세 번째 공간은 특고 등 군국주의자들의 전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서 고문실이다. 류타는 학생교육연구기관인 '작문교육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체포된 것이다. 고문실에서 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은사 사카베를 만난다. 사카베 역시 작문교육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와 스스로가 '공산주의자'임을 자백하도록 고문당하고 있었다. 류타는 끝까지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카베를 살리려면 공산주의자임을 자백하라



일본 사이렌 극단의
「총구」

는 협박에 결국 공산주의자라고 거짓 자백하고 사퇴서를 쓰게 된다. 네 번째 공간은 전쟁터이다. 전쟁터이지만 모두가 군국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기 그지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스스로가 공산주의자임을 밝히고 사퇴서를 쓰게 된 류타는 징집영장을 받고 전쟁터로 끌려오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류타는 하사관인 곤도에게 글을 가르쳐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 제자를 만들게 된다. 마지막 공간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평화 속의 공간이다. 전쟁이 끝나고 류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만 교직으로 복직하라는 주위의 권유에도 망설이게 된다. 그의 첫 번째 제자였던 유이치가 학도병으로 출전하여 사망한 것이다. 그는 자책감에 시달려 교사의 길을 포기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인 하사관 곤도 때문에 다시 한번 교사로써의 삶을 다짐하게 된다. 곤도 역시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류타는 그의 마지막 유서를 들고 곤도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곤도의 어머니는 유서를 받아들고 “선생님이 우리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 준 덕분에 그 애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라며 몇 번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일이 자신의 일임을 깨달은 류타는 ‘다시 한번 해보자’는 다짐을 하게 된다.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작은 가지는 김준명이라는 조선독립운동가와의 만남이다. 일본 탄광으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 중에 김준명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탄광에서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혀 몰매를 맞고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김준명을 류타의 아버지가 숨

겨준 것이었다. 이후 김준명은 만주로 가 독립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류타가 포로로 잡힌 곳이 바로 이 김준명이 활동하던 빨치산 부대였다. 류타를 알아본 김준명은 부상당한 류타를 치료하여 일본으로 가는 배에 태워준다. 서로 살리는 상생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60년 전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2005년 현재, 일본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우익 활동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헌법개정 등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서 교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학생들은 기립하여 기미가요를 부르고, 히노마루 국기 앞에 충성을 맹세한다. 이를 거부하는 교장들은 좌천대상이 된다고 한다. 국기를 걸고 국가를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생각하겠지만,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침략전쟁의 상징물이다. 천황의 치세를 축하하는 노래가 국가로 맞지 않는다하여 일본 교조에서 새로운 국가를 모집하기도 했다. 히노마루 계양과 기미가요 제창은 전쟁이 끝나고 금지되었다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해금되었다. 전쟁의 상징물이기에 이들에게 국가나 국기로 자격 부여는 꺼려졌다. 그러던 것이 1999년 법으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국기와 국가로 제정된다. 그리고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계양하는 것을 법제화시키려 하고 있다.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시절의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법제화된 것이 아니기에 히노마루에 경례하거나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장들이 좌천되는데, 법제화가 되면



극단 백수광부의 『고래가 사는 어항』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개구리를 따듯한 물에 넣고 1℃ 온도를 올리면 100℃가 되어도 개구리는 뛰어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 그 안에서 죽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이다. '국가, 국기 있어야지' 하며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인정하고, '국가 불러야지, 당연히 국기 게양해야지' 하며 이를 법제화시키고 이렇게 하나 둘씩 어영부영하게 되면 또 다시 일본국민은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고', '국가를 위해 죽일 수도 있는' 인간병기가 될 것이다. 역사 교과서 문제도 그렇다. 전쟁을 긍정하는 우익 역사 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데, 우익 교과서는 극악무도했던 행동들을 모두 국익을 위한 '진출'이란 단어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아니 정당화를 넘어서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다시 한 번 총구 앞에 선 것이다. 묘하게 현재는 60년 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연극과 상황이 똑같다. 어영부영 군국주의자들의 각본대로

끌려가는 일본 상황에 또다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기타무라 소오의 작품 『고래가 사는 어항』(아롱구지 소극장, 2005년 9월 8일~10월 2일)을 보며 놀랐던 부분이 있다. 『고래가 사는 어항』의 원제목은 『나사와 시계추』로, 13살 클레오라는 소년이 나사로 가로등 시계 맞추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붙은 제목이다. 클레오는 밤이 되면 가로등 불을 켜고 시계를 맞추는 일을 한다. 그런데 클레오는 실수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도시의 모든 가로등이 꺼지고 암흑천지가 되어 약탈,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는 소년에게 철학하는 거지 아저씨가 말한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라고...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면 과연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일까? 『총구』에서 류타가 자신의 제자인 유이치가 전쟁에 나가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교사의 길을 포기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류타는 자신이 용기가 없어서, 시대적 안목이 부족하여 어린 학생을 전쟁으로 내몰았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류타를 보며 일본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전쟁이 그런 거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류타는 말한다. “교사는 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 시대를 관철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안 된다. 나에게는 그 어느 쪽도 부족하다” 류타에게는 현명하지 못하고, 용기 없고, 시대를 읽을 안목도 없었던 그 모든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일본의 전래동화를 새롭게 각색한 『야마비코 이야기』(중앙대학교 아르센의 대극장, 2005년 9월 30일~10월 1일)를 보면서도 놀란 부분이 있다. 『야마비코 이야기』는 전래동화가 서로 엮히며 전개되는 작품인데, 그 중 『원숭이와 계의 전투』라는 작품을 보면서였다. 계가 가지고 있는 주먹밥을 보자 침을

흘리던 원숭이는 “감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감이 열린다”며 자신이 가진 감 씨앗과 계의 주먹밥을 맞바꾼다. 세월이 흘러 계의 지극 정성으로 감 씨앗은 감나무가 되고 감도 주렁주렁 열린다. 또다시 원숭이는 계의 감나무를 자신의 것이라 우기고 계를 괴롭힌다. 원작에서는 계를 괴롭히던 원숭이가 불에 타 죽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다시 원숭이와 계가 친구가 되어 웃으면서 끝난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모두 함께 신나게 춤을 추며 노래한다. 이 부분은 작품을 같이 본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이라면 분명히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나?” 라고.

언제나 같은 말이지만 한국이 일본에게 원하는 것은 ‘공식사과’이다. 이것을 자신들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유감입니다’라는 한마디로 표현한다? 이것은 분명 잘못을 인정

일본 극단 야마비코 카이의 『야마비코 이야기』



하는 태도가 아니다. 또 다시 어영부영 넘어 간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 작품을 보며 아쉬웠던 점은 치안유지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교사들을 고문하여 스스로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받아내는 데, 더욱이 가혹한 고문까지 하여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받아냈지만 결론은 교사직 사직에 지나지 않았다. 고문까지 당하며 자백을 했을 때 뒤따르는 불이익도 없다. 누군가를 밀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불이익이라고 해야 주위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 정도이다. 그런데 류타의 동생은 집안을 위해 스스로 자청하여 군입대까지 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목숨까지 유린당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일본 자국민들도 같은 피해자라고 주장은 하는데, “겨우 저 정도를 가지고 뭐 하는 거지?” 이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일본인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작품을 본 관객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본에도 피해자가 있었다는 데에 놀랐다’는 내용이 많았다고 한다. 이제는 반대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된다. 일본에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군국주의자는 아니다라는 피상적인 생각들이 연극 한 편을 통해 이렇게 구체화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우리 역시 일본에게 우리가 어떻게 군국주의에 희생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것은 일본인에게 “너희가 잘못했지?” 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다. 일본

유학시절, 친구 한 명이 울면서 찾아 온 적이 있다. 한국관련 비디오 자료를 보았다는 친구는 울먹이며 “미안해”만을 반복했다. 피상적으로 알던 것과 비디오로 직접 보았을 때의 충격은 다른 것이었다. 피상적으로 일본이 침략했다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수모를 당해야 했는지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가 어떤 수모를 당했기에 일본에 대해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명확히 우리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우정이란 무엇인가?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해주고,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털어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할 차례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야만 일본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제서야 용서도 화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2002년 독립극장의 『치마』가 일본에서 공연되던 때의 일이다. 『치마』는 여성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다룬 작품으로 일본 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치마』가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된 일본극장들은 공연 취소를 통보해 왔다고 한다. 다행히 지인들의 소개로 두 곳에서 공연을 마치는 했지만 일본의 벽은 높았다. 2005년 과연 일본인의 인식은 어느 정도 변하였을까? 2006년도에는 단순히 겉보기 ‘우정’에 급급한 나머지 어설픈 화해를 강요하는 작품이 아니라, 순수한 한국인의 입장을 그리는 작품들이 일본에서 공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P**